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최현실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의 추진 배경

서울시는 1995년 민선시장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 ‘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 심기’, ‘생활권녹지 100만 평 늘리기’ 등의 공원녹지정책을 수립하고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서서울호수공원, 중랑캠핑숲, 푸른수목원 등 대규모 공원 조성에 힘써 왔다. 생활권 내에서는 꾸준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어린이공원과 문화공원 등이 조성되었으며, 주거지나 가로변에 자투리 녹화와 띠녹지 조성 등 한정된 서울시 공간에서 공원 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공원녹지는 서울시 면적의 약 30%까지 차지하게 되었고, 이는 시민의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그랑프로제’의 사례처럼 젊은 실험주의자를 모아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박원순 시장의 당부 말씀에 따라 퍼블릭 스페이스(Public Space : 공공공간)에 대한 새로운 장을 만드는 작업을 위해 2012년 12월 서울형 공공조경가 그룹(공원혁신분과 24인, 공간조경분과 19인)이 구성되었다.

공공조경가 그룹에서는 이제까지의 공원녹지정책이 주로 물리적 공간조성 위주에 치우치고 소극적 관리차원에 머문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실행계획의 좌표를 설정하기 위한 선언을 작성하였다. 이는 공원녹지 관점에서 도시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중기·단기전략을 담기 위함이었다. 선언 작성을 위해 공공조경가 8인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동안 활동(9회)하면서 6개 공원에서 547명의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한편 Daum 아고라와 시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340여명의 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한 ‘푸른도시 만들기 워크숍’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4월 1일 ‘푸른도시선언’을 선포하였다.

1개의 전문과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푸른도시선언’의 전문은 “모든 생명은 서로 기대어 살아갑니다. 서울은 그 아름다운 공존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함께 만들고 가꾸고 지켜 나가는 시민 중심의 공원도시! 삶을 재충전하는 발전소, 이웃들이 소통하는 사랑방, 그 리하여 시민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숲의 도시! 이제 서울이 건강한 푸른도시로 다시 태어납니다.”로 하여 서울이 가지고 있는 푸른도시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도시와 자연이 상생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9개 조문에서는 산과 강 등 서울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강화하여 공원녹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시민은 유아에서 노년까지 녹색복지 권리를 가지며 공원의 주인임을 알려 시민의 권리와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푸른도시선언’이 값진 이유는 선언문 수립 과정에 전문가, 시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담아 직접 만들어 냈다는 데에 있다.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의 비전과 정신

이러한 ‘푸른도시선언’을 구체화하는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워크숍 2회, 시민·직원 아이디어 공모 35건, 9인의 공공조경가 실무위원회 18회, 공공조경가 그룹 전체 워크숍, 자치구·사업소 등 실무자 워크숍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3대 전략 21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서울의 공원녹지 패러다임이 대규모 부지에 새로 만드는 하드웨어적 특정공간 중심의 개념에서 가로, 골목길, 광장, 유수지, 옥상까지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공원도시’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차가운 콘크리트의 도시 서울’이 아닌 ‘꽃 피고 새 우는 도시 서울’ 전체를 공원화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공원녹지 혜택을 누리고, 공

원 속의 도시를 실현하는 ‘공원도시 서울’ 비전을 수립하였다.

‘공원도시 서울’을 만드는 정신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 부서 간과 유관단체의 협력,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협력’에 있다. 협력은 참여주체의 확산을 통해 버려진 골목 한 귀퉁이, 방치된 지하보도와 건물의 옥상 등 도시 속에 숨은 공간들을 찾아내 초록이 물들고 녹음이 우거지게 하여 사람이 모이게 되고 지역사회에 애정이 생기는 이웃 간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은 ①녹색문화 확산 ②공간가치 증대 ③공원운영 혁신 등 3대 추진전략에 대하여 21개 실천과제로 이루어진다.

세부적으로는 ‘일상에서 평생까지 녹색문화 확산’을 위해 10분 공원 프로젝트, 365녹색복지, 푸른일자리 창출을 추진목표로 1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창의적 접근을 통한 공간가치 증대 전략’을 위해 정원문화, 도시재생, 역사문화, 생물다양성을 추진목표로 7개 과

푸른도시선언 3대 전략 21개 실천과제

추진전략	추진목표	실천과제
녹색문화 확산	10분 공원프로젝트	• 가로정원 프로젝트 •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정착 • 생활 속 그린맵 작성
	365일 녹색복지	• 녹색복지서비스 기준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 •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조성 • 에코 레크리에이션 활성화 • 공원과 건자 프로젝트
	푸른일자리 창출	• 푸른일자리 발굴 및 기반 마련 • 도시정원사 양성 • 공원녹지 산업 육성
공간가치 증대	정원문화 도시재생 역사문화 생물다양성	• 서울형 정원박람회 개최 • 서울둘레길 활성화 및 주변 연결 프로젝트 • 잠깐공원 프로젝트 • 공원역사성회복사업 • 역사가 흐르는 서울공원길 • 생물다양성 플랜 • 지역맞춤형 공원 리모델링
공원운영 혁신	시민참여 커뮤니티 활성화	• 공원시민센터 • 공원문화 큐레이팅 운영 • 공원 커뮤니티 가든 조성 · 운영 • 유기농 매점과 레스토랑

제를 선정하였다. ‘협력과 거버넌스를 통한 공원운영 혁신 전략’을 위해 시민참여, 공원운영혁신, 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목표로 4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전략1. 일상에서 평생까지 녹색문화 확산(10개 과제)

평생 녹색복지서비스의 기준이 생기고 어디서나 10분 이내에 공원을 만날 수 있으며 공원을 활용한 푸른일자리가 생기도록 하는 전략이다. 10분 공원 프로젝트는 공원의 개념을 산, 하천, 가로, 광장, 골목길, 옥상 등으로 확장하여 어디서나 10분 이내에 공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제1-1. 가로정원 프로젝트

우선 서울의 가로를 꽃, 나무, 쉼터와 사람이 어울리는 쾌적한 정원으로 조성하고자 2014년 삼일대로 600m(교동초교~안국역, 기업은행~청계천)와 테헤란로 1,400m(역삼역~선릉역)에 가로정원을 조성한다. 돈화문로(3호선 종로3가역)에 감나무거리 770m, 율곡로(경복궁사거리 주변) 사과나무거리 80m를 조성해서 특색 있는 가로수길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양도성(안)도로공간 재편 시범사업 중 우정국로 740m(안국동사거리~광교)의 차로를 축소해 보도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등 비움과 집중을 통해 가로 특성에 맞는 녹색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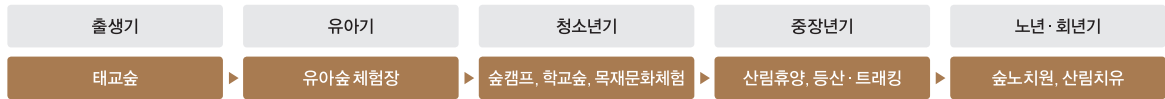
과제1-2.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정착

‘서울, 꽃으로 피다’ 슬로건은 단순히 보도에 꽃을 심어 정원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 시민 주도로 서울 전체가 아름다운 꽃의 도시, 초록의 도시로 나아가는 비전이다. 2014년에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정착을 위해 중점추진구역을 6분야(아파트, 상가, 학교, 골목길, 동네 빈 땅, 가로변)에서 직장, 어린이집, 주유소를 추가하여 9분야 800곳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제1-3. 생활 속 그린 맵

생활 속에서 접근 가능한 녹색공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린 맵(Green map)’을 제작해 앱으로 서비스하는 과제다. 2014년에는 시민이 우리 동네 녹화가 잘된 곳, 녹화가 필요한 곳을 ‘그린 맵’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려 한다.

생애주기별 녹색복지서비스



과제1-4. 녹색복지서비스 기준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

생애주기별 녹색복지서비스 기준을 통해 맞춤형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제다. 2014년에는 녹색복지의 개념, 기준 및 지표마련과 추진전략을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 올해 157km 서울둘레길이 완성되면 지리산 종주처럼 7박8일 종주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과제1-5.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 조성

지금까지 서울의 산림과 공원 숲은 단순한 여가·운동 공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멀리 가지 않고, 건강유지에 필요한 녹지를 나이대별로 향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4년에는 중랑구 용마산 등 6곳에 유아숲체험장, 서대문구 안산공원 등 2곳에 청소년 모험의 숲, 초안산 등 2곳에 치유의 숲, 사색의 공간 100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태교숲, 숲노치원 등도 녹색복지 서비스 기준 연구에서 새로이 정립하여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과제1-6. 에코 레크리에이션 활성화

에코 레크리에이션 활성화 사업은 공원에서 환경을 배려한 여가활동을 통한 친환경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유도하는 과제다. 햇빛온풍기나 곡물건조기 등을 만들어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삶의 기술 워크숍’을 북서울꿈의숲 등 4곳에 2014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목공을 체험해 보는 ‘희망목공소’도 도봉 등 4곳에서 운영한다.

과제1-7. 공원과 걷자 프로젝트

산과 공원길을 이용자 유형별 시범코스로 선정하고 생활보건과 연계하여 단순한 걷기에서 건강관리와 접목한 걸기로 거듭나는 것으로, 2014년에 북서울꿈의숲 등 4개 공원에서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시공원에서 건강강좌를 운영한다. 서울숲에 건강증진

센터를 시범운영하여 공원이 시민 건강 증진의 허브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제1-8. 푸른일자리 발굴 및 기반 마련

공원녹지 운영의 서비스 기능 확대에 따라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2014년에는 공원서비스 유형별 분류작업(역사문화체험형, 자연체험형, 건강관리형 등)과 함께 청년·주부 100명(실고용 9개월)을 ‘공원놀이지도사’로 양성한다.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에 따라 유기농푸드판매자, 공원놀이지도사, 공원문화큐레이터, 학교정원관리사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제1-9. 도시정원사 양성

실무능력을 겸비한 도시정원사를 배출해 도시의 정원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서울정원사학교(4개월씩 2회 150명 교육)와 시민조경아카데미(교육 20시간, 연 2회 연 400명 대상)를 진행한다.

과제1-10. 공원녹지 관련산업 육성 지원

공원녹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련 산업이 육성되도록 지원하는 계획이다. 2014년에 한국조경사회 등 단체·산업체와 합동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민간협력 방안을 구축하고 앞으로 녹색산업 발전 R&D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전략2. 창의적 접근을 통한 공간가치 증대(7개 과제)

기존 공원녹지에 정원문화, 도시재생, 역사문화, 생물다양성 4개의 축을 가미해 공간의 가치를 증대하는 전략이다.

과제2-1. 서울형 정원박람회 개최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과 연계된 서울 정원박람회는 서울의 자연 및 문화자원을 살리는 주제나 장소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재생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비엔날레 형식으로 2015년에 첫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과제2-2. 서울둘레길 활성화 및 주변 연결 프로젝트

서울둘레길 활성화 및 주변 연결 프로젝트는 둘레길 자연자원과 인근 문화자원의 연계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이다. 2014년에 35km의 둘레길을 조성하여 모두 157km의 둘레길이 완성되면 서울둘레길 주변 자원조사와 시범 연결이 이뤄지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열리며 전문가 동반 정기 걷기 프로그램이 민간협력 사업으로 진행된다.

과제2-3. 잠깐공원 프로젝트

잠깐공원 프로젝트는 경춘선 폐선부지처럼 개발예정부지와 미개발지, 자투리땅 등 공공공간에 전문가의 재능기부 등으로 받은 작품 설치,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 등 창의적 활용을 도모하는 과제다. 2013년 생활주변 자투리 공간 1곳당 30㎡ 내외의 공간에 시민·전문가팀이 72시간 내 설계와 시공을 하여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2014년에는 대상지 전수조사 시행과 잠깐공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과제2-4. 공원역사성 회복사업

남산회현자락, 탑골공원, 사직공원 등처럼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원의 재평가를 통해 가치를 회복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다. 2014년에는 공원 내·외 역사·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고 테마를 부여하는 등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또 남산회현자락 3단계 정비를 통해 한양도성을 170m 정비하고, 2만 1,000㎡의 공원을 조성한다.

과제2-5. 역사가 흐르는 서울공원길

서울의 독특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원, 공공공간, 정원을 이어주는 매력적인 길을 선정하고 스토리를 발굴·운영하고자 하는 과제다. 2014년에는 서울시 대표공원 주변 역사·문화 자원을 조사하여 코스별 스토리텔링을 하고자 하며, 서울공원길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과제2-6. 생물다양성 플랜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위해 ‘생물다양성 10개년 계획’ 등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플랜을 수립하는 과제다. 2014년에는 시민협력으로 도시생물탐사(Bio blitz)를 진행하고 서식현황 모니터링으로 생태지도를 만들 계획이며, 공원별 상징 생물 지정 등 생물다양성 증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한다. 종량천 등 4개 하천 16곳(74만㎡) 도심 하천변 훼손공간 생태복원, 8곳(5만 6,000㎡)의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누수식 생태보 20곳, 생태적 물순환체계 구축 등 생물서식지 복원 및 녹지축을 계속적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과제2-7. 지역맞춤형 공원 리모델링

기존 공원을 지역문화가 반영된 특화된 공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커뮤니티 디자인 과정을 통해 지역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적 관리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과제다. 2014년에는 성산공원 등 3개소에 대해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략3. 협력과 거버넌스를 통한 공원운영 혁신(4개 과제)

공원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의 숲, 공원, 자투리 공간을 관리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과 활동을 지원·육성하여 시민협력으로 공원 운영을 혁신하는 전략이다.

과제3-1. 공원시민센터

올해 서울숲에 시민참여활동의 기반이자 거점 역할을 할 ‘공원시민센터’를 시범 설치해 시민들의 공원활동, 지역커뮤니티를 지원한다. 향후 북서울꿈의숲, 푸른수목원 등 권역별 주요 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과제3-2. 공원문화큐레이터 운영

공원문화큐레이터는 공원의 특성을 고려한 예술가의 상상력과 시민의 창의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문화·예술·전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문가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조사해 스토리를 발굴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문화·예술을 주제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은 신진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즉석에서 구매도 하는 축제형 아트마켓 ‘선유도 거리예술장터’, 시민이 기증한 중고 피아노가 공원으로 나오는 이색 ‘달려라 피아노 프로젝트’, 애플 없는 언플러그드 뮤직 페스티벌인 ‘전신마취 음악축제’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과제3-3. 공원커뮤니티 가든 조성 운영

도시 텃밭에서 시민들이 함께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나눔과 서로 도우는 공동체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과제다. 2014년에는 은평구 갈현공원에 도시농업체험원을 조성하고 마을단위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유기농산물의 수확과 일일장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제3-4. 유기농 매점과 레스토랑

서울의 공원에서 친환경적인 푸드 판매 매점과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적어도 공원에서만은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유기농을 먹는다’는 목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에는 공원 내에 1곳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면서 직거래 농산물 장터를 주기적으로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2016년까지 802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14년에는 191억 8천 7백만 원이 확보되어 있다.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의 의의 및 향후계획

서울시는 푸른도시선언과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으로 공원녹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시민들의 발길 닿는 곳마다 공원으로 느끼도록 공원의 개념을 확대하고 태교에서 평생까지 생애주기별로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새로이 녹색복지를 정립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공원녹지가 갖는 가치, 서비스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각종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로 공원녹지 이용가치를 증대시켜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공원놀이지도사 등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 수립과 실행과정에 시민·전문가의 직접적인 참여는 새로운 시도로, 향후 시민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 등 지속적인 효과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은 추진 슬로건을 ‘우리는 초록특별시에 산다’로 정하고 전략계획의 실천을 통해 서울특별시를 초록특별시로 이미지화하고자 한다. 공원이 도시를 디자인하고 개인의 삶을 바꿔 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서울시의 자연과 함께 사람이 살아가는 지속적인 도시, 초록특별시 서울로 나아가기 위해 실천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앞으로도 시민·전문가와 함께 풀어나가려 한다.